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심리학자 위니코트는 매우 종교적이고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대인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한다. 이에 그는 놀이야말로 건강한 인성 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놀이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활동으로, 위니코트는 이 공간을 '잠재공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사람들(처음에는 어린이, 나중에는 성인)은 타인과의 직접 대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타자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상호 호혜성에 관해 막대한 가치를 지닌 연습을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놀이는 아이가 자신의 앞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마법 같은 판타지 속에서 시작된다. 장난감이나 주변의 물건 등 아이가 자신만의 '과도기적 대상물'과 더불어 놀이하는 자기 위안의 게임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나 다른 아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놀이를 통해 점차 자신감과 신뢰를 획득할수록 통제는 느슨해지며, 아이는 실제 상황이라면 괴로울 수 있으나 놀이 속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방식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놀람을 실험할 수 있게 된다. 놀이는 취약함과 놀람surprise과 관계되는 경험을 (불안감이 아니라) 호기심과 경이wonder에 연결시킨다. 가령 어린이집에서 동시와 동화들을 배우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매우 위협적일 수도 있는 타자의 등장은 놀이에서는 호기심의 즐거운 원천이 되며, 이 호기심은 우정, 사랑 그리고 훗날 사회·정치적 삶에 필요한 건강한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상대방의 느낌을 읽고 의도를 이해하며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쉬워진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로빈 던바는 뇌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했다. 던바는 동물의 두뇌에 있는 대뇌신피질의 크기가 대체로 사회 집단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위인 대뇌신피질은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두뇌의 약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여우원숭이 과에 속하는 프로시미안이라는 영장류의 경우 낮게는 50퍼센트에서 인간의 수준과 비슷한 80퍼센트까지 분포되어 있다. 전체 두뇌의 크기에 비해 대뇌신피질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집단에 속하는 동물의 수가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며, 구성원들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영장류 가운데 대뇌신피질이 가장 큰 인간은 가장 크게 확대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간다. 인류 초기에 일차적 집단인 씨족은 약 150명 정도로 구성되었고,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부족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던바는 사회적 동물이 집단에서 적절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느낌을 탐색하고 감정을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쁨부터 슬픔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더군요. 고요하게 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천년의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었죠. 대탈출을 감행하는 동안, 모두가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도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혼자인 사람들, 즉 고립적 자아는 죽었습니다. 사회적 자아가 우세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다시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틀어박혀 주위를 차단하지도, 이웃과 단절되어 느꼈던 과거의 외로움을 느끼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고난과 불행한 운명 때문에 혼자 남았다는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진과 화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따뜻한 마음과 기쁨이었습니다. 용감함도, 강인함도, 새로운 도시도 아닌 이전에 없던 포용력, 타인에게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 뒷면에 계속 >

[라]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몇 군데의 영토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데 영국군과 독일군은 긴박하게 대치하는 와중에도 잠시 전투를 중단하기도 했고, 프랑스와 벨기에 영토의 800킬로미터에 걸친 여러 전선에서는 적군끼리 공격을 자제하는 일도 허다했다. 우리 영국군은 독일병사들이 아군의 소총 사정거리 내에서 태연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적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매일 저녁 어둠이 깔린 뒤 보급 장교가 전투식량을 가져오곤 했다. 아마 독일군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밤 동안 그 시각이면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보니 전투식량을 나르는 병사들은 두려움이 없어졌고 나중에는 웃고 떠들면서 참호로 돌아왔다. 일부 전선이 그렇게 조용했던 진짜 이유는 양측 모두 거기서 진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전투 지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시간으로 정했고, 깃발로 표시한 어떤 지역들은 양측 저격수로부터 안전했다. 어느 날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럽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다. 우리 병사들과 독일군이 각기 자기들 진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제 사격이 가해졌다. 양측 모두 내려앉고 독일군 한 명이 진지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이렇게 외쳤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 빌어먹을 프러시아 포병 놈들 때문이다”.

[마]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

“(타인과의) 공감 없이 길을 걸어가는 이는, 그가 누구든지, 수의를 걸친 채 자기 자신의 장례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식을 통해 힘 있는 이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감을 통해 온전함을 얻는다”. 전자는 휘트먼의 연작시 「나의 노래」의 한 구절이며, 후자는 타고르의 에세이 「나의 학교」의 핵심을 이루는 문장이다. 이 말들은 성숙한 인간, 온전한 인간의 조건이 타인 및 세계와 관계 맺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사실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만으로는 자신을 주위의 복잡한 세계에 연결시킬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감각과 사고방식으로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타자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민주적인 삶을 실현할 수 없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보호적 공포와 자아중심적인 지배 기획에 함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과 소망과 욕구를 갖게 될지 생각하며, 타자를 위해/향해 필요한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학자 사이먼 배런코언이 설명한 것처럼, “공감은 우리가 관심사에 외골수적(single-minded)으로 집중하기를 중단하고, 대신 이심적(double-minded)으로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 일어난다”. 공감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다양한 ‘인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논제 II]

제시문 [바]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시오. [1,101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출 제 개 요 (인문·체능계)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모의논술의 논제는 '공감'이다. 공감이 단순히 타인과 느낌을 공유하는 감정적 자질을 넘어, 인간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자, 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논제 1>에서는 공감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인문학적 사유)과 생물학적 분석(자연과학적 통찰)을 병치해 공감이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자,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지속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논제 2>에서는 공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 즉 감정 이입, 입장전환의 사고력, 상호 호혜적 태도, 타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 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실제 사례 및 시작품을 통해 분석하게 함으로써 공감의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공감의 작동이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와 세계를 위한/향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성찰하는 데 이르면 최상의 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위니코트는 놀이를 건강한 인성 형성의 핵심으로 본다. 놀이가 지닌 타자성에 대한 즐겁고도 안전한 실험의 기능이 인성 형성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놀이는 사람들 사이의 실제 생활공간이 아닌 '잠재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상황이라면 위협적일 수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기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과 놀람을 타자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 바꿀 수 있으며,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공감과 상호 호혜의 타자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으로 승화할 수 있다. 타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통제하려는 유아기의 욕망은 놀이를 통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정, 사랑, 건강한 사회·정치성 등의 고차원적인 삶의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공감은 온전한 자아 형성과 타자와의 행복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능력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태도의 기반이 된다.

[나]에서 공감적 유대감을 결정하는 것은 두뇌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위인 대뇌신피질의 크기이다. 로빈 던바는 동물의 두뇌 중 대뇌신피질의 크기가 사회 집단의 크기, 구성원의 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도,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영장류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대뇌신피질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공감적 유대감은 사회적 동물이 해당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이는 대뇌신피질의 크기와 상보적 비례 관계에 있다. 구성원들끼리 감정을 주고받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 지속을 위한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다]는 목숨이 위험한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난 거의 완벽한 차원의 공감을 다룬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재난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극대화하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심 역시 극대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진과 화재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자아였다. 타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입장전환의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경지였다.

[라]는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호성에 기반한 공감을 묘사한다. 이 놀라운 상호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공동의 입장에 대한 통찰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적인 상호성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우호적인 상호성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균형점에 도달한다. 죽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호 교환하는 이러한 공감의 방식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전쟁의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인간이 존중하고 나누어야 할 궁극의 대상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운다.

[마]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을 그린다. 시 속의 '나'는 어느 관공서를 지나다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공감에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 입장전환의 사고, 타자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상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 삶의 출구가 막힌 '서기'에 대한 깊은 공감은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에서 보듯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타자를 주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전유와 구별된다.

<제시문 출처>

- [가]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나]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다] 레베카 솔닛, 정해영 역,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2012.
 [라] 로버트 액설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마]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바] 자체 집필.

예 시 답 안 (인문·체능계)

■ 논제 1

공감에 대해 [가]는 인간의 심리와 인성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사유를, [나]는 두뇌의 특정 부위의 크기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자연과학적 통찰을 전개한다. [가]는 공감이 후천적 학습을 통해 발전함을 '놀이'를 근거로 설명하며, [나]는 공감이 생물학적 조건에 지배됨을 두뇌의 '대뇌신피질'을 근거로 분석한다. 접근방식은 다르나, [가]와 [나]는 모두 공감을 사회 관계 및 조직의 토대가 되는 능력으로 보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에서 놀이는 타자성에 대한 안전한 실험의 기능으로 인해 건강한 인성 형성의 핵심이 된다. 놀이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상황이라면 위협적일 수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즐겁게 경험하게 한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공감과 상호 호혜의 타자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나]에서 공감적 유대감은 두뇌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대뇌신피질의 크기와 비례 관계에 있다. 대뇌신피질의 크기는 사회 집단의 크기,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도,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능력의 정도 등을 결정한다. 공감적 유대감은 사회적 동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뇌의 구조에 의해 형성, 발전한다. (601자)

■ 논제 2

공감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공감은 감각, 감정, 이성, 마음, 영혼 등 인간이 지닌 모든 영역에 관계하며,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입장전환, 상호성, 상상력 등의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공감의 작동은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와 세계를 위한/향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는 위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난 타아일체의 공감을 다룬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재난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극대화하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심 역시 극대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진과 화재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자아였다. 타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입장전환의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경지였다.

[라]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호성에 의한 공감을 묘사한다. 이 놀라운 상호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공동의 입장에 대한 통찰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적인 상호성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우호적인 상호성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균형점에 도달한다. 죽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호 교환하는 공감의 방식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전쟁의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인간이 서로 존중해야 할 최후의 대상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운다.

[마]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을 그린다. 시 속의 '나'는 어느 관공서를 지나다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공감에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 입장전환의 사고, 타자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상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 삶의 출구가 막힌 '서기'에 대한 공감은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에서 보듯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이른다. 이는 타자를 주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전유와 구별된다. (1,200자)